국기원 태권도연구, 2010, 제1권, 제1호
Taekwondo Journal of Kukkiwon
2010, Vol. 1, No. 1, 45-55

태권도 철학과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Taekwondo Philosophy and the Dispute on *Sa-Dan* and *Chil-Jeong*(SDCJR: *Sa-Dan Chil-Jeong Ron*)

이창후*
서울대학교

Lee, Chang-Hoo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과 태권도 철학과의 관계를 탐구해 보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단칠정론의 탐구가 오늘날의 태권도 철학 연구에 어떤 유익한 관점과 철학적 함축을 던져주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한국 사회를 500년 이상 지배하면서 정신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한국 성리학이 태권도 철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 성리학의 내용 중 그 정화(精華)라고도 일컬어지는 사단칠정론 역시 태권도 철학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데에 어떤 생산적인 관점과 함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한국 성리학의 독자적인 철학적 논쟁과 태권도 철학의 관계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논의의 결과 사단칠정론은 "태권도 철학에서 기법이 정확하거나 잘못되는 존재론적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유의미한 물음을 조명하게 되며 이에 대해 리기론적 대답을 상정한다. 그 대답 역시 사단칠정론의 역사에 비추어서 주리론적 대답과 주기론적 대답이 모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의 논의는 다소 개략적인 수준에서 태권도 철학과 사단칠정론의 관계를 논의한 것이지만, 이후의 연구 방향을 가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nquires the relation of SDCJR (*Sa-Dan Chil-Jeong Ron*: the Dispute on *Sa-Dan* and *Chil-Jeong*) and the Taekwondo (TKD) philosophy. More particularly I consider what kind of useful insight and philosophical implication SDCJR gives on the philosophical research of Taekwondo. Korean neo-confucianism influenced Korean culutre for more than 500 years, and it must have influence on TKD philosophy. Then it is obvious SDCJR will give useful insights and implications in the study of TKD philosophy. In this point this paper is meaningful that it studies the relation of unique issues of Korean philosophy and TKD philosophy. The contents of dicussion is followings. 1) SDCJR makes us ask "what is the ontological foundation of the technique's success and failure in TKD philosophy?", and it demands answers from the theory of *Li* and *Ki* (理氣論). Two answers are possible from the SDCJR's viewpoint; *Juriron* (主理論)'s and *Jukiron* (主氣論)'s. This paper limits the discussion within somewhat overall review, but I wish it can be helpful for the following researches.

Key words : Taekwondo Philosophy, *Sa-Dan Chil-Jeong Ron*, Korean Confucianism.

* pakebi@hanmail.net

I. 서 론

본 논문은 한국 성리학의 독특한 이론적 쟁점이자 내용적 발전이었던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과 태권도 철학과의 관계를 탐구해 보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단칠정론의 탐구가 오늘날의 태권도 철학 연구에 어떤 유익한 관점과 철학적 함축을 던져주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태권도는 한국문화의 산물이고 태권도 철학은 그런 태권도의 사상적·이념적 근거를 해명한다. 한국 사회를 500년 이상 지배하면서 정신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한국 성리학은 태권도 철학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성리학의 내용 중 그 정화(精華)라고도 일컬어지는 사단칠정론 역시 태권도 철학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데에 풍부한 물음과 생산적인 사고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사단칠정론과 태권도철학의 관계를 연구한다는 것은 동아시아 전 지역에 영향을 끼친 성리학과 태권도 철학의 관계가 아닌, 한국 성리학의 독자적인 철학적 논쟁과 태권도 철학의 관계를 논의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의는 태권도 철학과 성리학 전반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거대한 사상의 한 요소와 태권도 철학의 한 요소의 단순한 유사성 및 차이점에 집착한 연구로서 큰 오류로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태권도 철학은 아직 그 지식체계가 풍부하지 못하고 질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많은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 다행히 최근에 박준석(2004), 이창후(2007b) 및 정근표(2008)와 같은 한국 성리학과 태권도 철학의 전반적 관계를 고찰한 연구들이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사단칠정론과 태권도 철학의 관계를 논의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런 점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 철학과 한국 성리학의 이론적 연관성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인식되고 있지는 못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양자의 전반적인 관계를 요약적으로 고찰하고 사단칠정론의 핵심을 정리한 후 태권도 철학과의 철학적 관련성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특히 성리학과 사단칠정론에 익숙하지 않은 태권도학자들이 시도하는 이후의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각 논의의 핵심들을 표로 정리하면서 논의를 전개하겠다. 이런 시도는 본 연구자의 주장의 옳고 그름을 보다 분명히 하여 실수가 있을 때 그것이 또렷이 보인다는 점에서 자기 족쇄가 될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사단칠정론과 관련된 태권도철학의 후속 연구들에 대한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본 연구 주제의 필요성과 방법적 필요성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논의는 다소 개략적인 수준에서 태권도 철학과 사단칠정론의 관계를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주장을 태권도 철학에 적용한 사단칠정론의 쟁점에 대한 답으로 제시하기보다는 태권도 철학 안에서의 사단칠정론적 관점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답은 열어둔 채로 철학적으로 가치있는 비판적 물음을 던지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논제가 된다. 이것은 곧 태권도철학을 구성함에 있어서 사단칠정론으로부터 연구방법에 있어서나 결론에 있어서나 어떤 모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본 논문의 초점임을 의미한다.

II. 한국 성리학의 개략적 이해

이 논문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사단칠정(四端七情)의 문제는 성리학(性理學)의 철학적 논쟁거리였다. 그리고 큰 맥락에서 성리학은 다시 유학(儒學)의 한 분파가 된다. 따라서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리학의 흐름에 대하여 간략하게 고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1)]

춘추전국시대에 기원한 것으로 알려진 유학의 후대

1) 태권도의 입장에서 한국 성리학을 비교적 상세히 고찰한 논의가 이창후(2007b)와 정근표(2008)가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두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여기서는 사단칠정론의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최대한 간단히 요약할 것이다.

변화양태 중 하나인 성리학은 '성명(性命)'과 '의리(義理)'를 강조하는 학문적 목적 하에서 성리학은 우주의 생성 원리와 인간의 선천적 본성을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사변 철학이다(이종태, 1996, 61-62쪽). 그 주된 내용은 리기론(理氣論), 심성론(心性論), 정사론(政事論)으로 구성되는데(백도근, 1994, 5-6쪽) 태권도 철학과의 관련성에서 본다면 정사론보다는 수양론을 포함시켜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이창후, 2007b).

성리학의 리기론(理氣論)은 우주본체론으로 출발하여 인성론(人性論)으로 연결·발전되었는데(정근표, 2008, 45쪽) 먼저 우주본체론의 경우 우주의 구조를 태극(太極)·리(理)·기(氣) 등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정재환, 1996, 64쪽) 만물의 직접적 근원으로 리(理)와 기(氣)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리(理)란 형상없는 이치이면서 생성변화의 시원이 되는 것이고, 불변하는 것이며 운용의 항상성을 갖는 것이다(윤천근 1987, 197-209쪽). 한편 기(氣)란 형상없는 이치인 리(理)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으로서, 형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물질적 인자이다(윤천근, 1996, 212-218쪽). 이에 따라서 리(理)→음양(陰陽)→오행(五行)→인간(人間)과 우주만물(宇宙萬物)의 형성이라는 변화과정이 성립된다(배정하, 1995, 9쪽).

심성론은 성리학이 인간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성리학의 리기론(理氣論)은 만물의 차별성과, 인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적 장치이다(이창후, 2007b). 리(理)는 사람의 본성이 되고 기(氣)는 사람의 육신을 구성한다. 인간은 누구나 다 같이 천(天)으로부터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리(理)를 타고 났는데 현실적으로 기(氣)에 있어서는 음양대립의 모습이 생겨나서 그 재능과 덕성(德性)에 있어서 차이가 생긴다. 성리학에서는 리(理)가 기(氣)보다 우월하므로 인간에게 있어서도 육신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인간의 마음은 심(心)·성(性)·정(情)·의(意)로 구분되고 이 중에서 성(性)은 우주의 리(理)가 인간에 부여된 것이며 그 내용이 곧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이며 그 중 인(仁)·의(義)·예(禮)·지(智)의 발로를 사단(四端)이라 한다. 정(情)은 성(性)의 발용(發用)으로 생겨나는 마음의 현상이다. 7가지 정(情)이 곧 칠정(七情)이다(이완재, 2001, 286-288쪽).

수양론은 유교의 근본 목적 중 하나이다. 유교의 목표는 도덕적 수양을 통하여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성인(聖人)·군자(君子)가 되어 도(道)를 밝혀 세상에 봉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유교의 방법론이 곧 학문(學問)인데 유교적 전통에서의 학문이란 자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곧 내성외왕(內聖外王) 혹 수기치인(修己治人)이다. 내성(內聖)과 수기(修己)는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며 외왕(外王)과 치인(治人)은 도를 밝혀 세상에 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창후, 2007b). 외왕과 치인은 정사론에 관련된 표현이며 수양론의 핵심은 수기(修己)인데 그 핵심이 궁리(窮理)와 거경(居敬)이다. 궁리(窮理)란 이치를 탐구하고 지식을 얻는 것이며 특히 도덕적, 윤리적 지식을 얻는 것이다. 거경(居敬)이란 항상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즉 경(敬)에 거(居)하는 것이다. 퇴계가 주경, 궁리, 실천을 강조하고 실천하였으며(유명종, 2000, 252쪽) 율곡은 이런 역행을 위해 성실(誠實), 즉 성(誠)을 추가해서 강조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성리학의 논의 구조와 내용 요약

논의	내 용	주요 개념들
리기론	우주의 구조	태극(太極)·리(理)·기(氣) 등
심성론	인간의 구조	심(心)·성(性)·정(情)·의(意) 등
수양론	도덕적 수양의 방법	궁리(窮理)·거경(居敬)·성실(誠實) 등

III. 한국 성리학의 사단칠정론 (四端七情論)

한국 성리학을 특징짓는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의 문제 역시 이런 맥락 속에 있다.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의 개념을 상세히 알아보고 사단칠정론(論四端七情論)의 내용을 고찰하도록 하자.

앞의 심성론(心性論)에서 보았듯이, 사단(四端)과 칠정(七情)은 성리학적 인간의 이해에서 나타나는 개념이다. 인간이 가진 희(嬉)·노(怒)·애(哀)·구(懼)·애(愛)·오(惡)·욕(慾)의 7가지 기질이 칠정(七情)이고, 이

칠정의 발로인 인(仁)·의(義)·예(禮)·지(智)를 사단(四端)이라고 한다.

원래 '사단(四端)' 개념의 기원은 『맹자(孟子)』에서 시작된다. 사단은 맹자의 이른바 측은(惻隱)·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是非)의 정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 "측은해 하는 마음은 어짐(仁)의 단서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의로움(義)의 단서이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절(禮)의 단서이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은 지혜(智)의 단서이다. 사람들이 이 네 가지 단서(端緖)를 지니고 있는 것은 그들이 몸뚱이를 가진 것과도 같다."[2]

한편 '칠정(七情)'의 개념은 『예기(禮記)』에서 시작되며, 사람이 타고나는 모든 감정을 총칭하는 관념이라 할 수 있다(김기현, 1992, 54쪽).

> "무엇을 사람의 정(人情)이라 하는가?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망의 일곱 가지가 그것이다. 이것들은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다."[3]

그러므로 사단과 칠정은 모두 인간의 도덕과 관련된 감정과 의지들에 대한 개념들이며, 리기론(理氣論)에 기초하여 도덕적 설명을 위해 범주화된 것이다. 그 구분은 기(氣) 작용이 리(理)를 완전히 실현시키느냐 실현시키지 못하느냐를 기준으로 할 따름이다(성태용, 1992, 73쪽). 정리하자면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이란 이상의 사단칠정에 대한 리기론적 해석과 더불어 그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다.

사단칠정의 문제가 한국 성리학의 문제가 된 것은 추만 정지운(鄭之雲)이 권근의 『입학도설』에 나오는 '천인심성 합일지도'(天人心性合一之圖)에서 힌트를 얻어, 『천명도해(天命圖解)』를 지으면서부터이다. 그가 이 책을 지은 목적은 학자들에게 《중용》의 천인지도(天人之道)를 강의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도식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4] 추만은 이 책에서 성리학적 개념들을 동원하여 천인지도를 설명하고, 천명의 내용과 천(天)과 인(人)에 대한 리기론적 설명, 그리고 이를 통한 천인합일의 가능 근거를 밝히고 있다(정대환, 1992, 32쪽). 여기서 추만은 "사단은 리(理)에서 발동하고, 칠정은 기(氣)에서 발동한다"라고 언급하였다. 다른 학자들이 이런 추만의 주장에 대해 논쟁하면서 사단칠정론이 한국 성리학계에서 쟁점화되었다. 퇴계 이황은 사단과 칠정에 대한 추만 정지운의 설명을, "사단은 리(理)의 발동함이요, 칠정은 기(氣)의 발동함이다"라고 수정하였다[5](황준연, 1995, 70쪽). 이 수정된 천명도가 세상에 알려지자 이를 검토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또 그 내용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들 중 고봉 기대승이 퇴계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른바 사칠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정대환, 1992, 30쪽). 여기서는 사단과 칠정의 문제와 이에 대한 가장 영향력있는 입장인 퇴계, 고봉의 입장을 살펴보고 율곡의 입장에 대한 고찰을 덧붙이도록 하겠다.

사단칠정론의 관심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악한 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포함한다(정대환, 1992, 43쪽). 즉 리기론에 바탕을 둔 성리학적 심성론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선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탐구하는 유학의 목적에서 사단칠정론은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쟁점은 사단이 칠정의 한 부분인가 아니면 칠정과 전혀 별개의 것인가 하는 점이다(김기현, 1992, 57쪽). 그 까닭은, 성리학적 심성론에서 악이란 기의 취산(聚散), 굴신(屈伸), 동정(動靜) 등의 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2) 『孟子』, <公孫丑> 상, 제6장: 惻隱之心, 仁之端也, 羞惡之心, 義之端也, 辭讓之心, 禮之端也, 是非之心, 智之端也. 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也.

3) 『禮記』, <禮運>: 何謂人情? 喜怒哀懼愛惡欲, 七者弗學而能.

4) 퇴계의 ≪성학십도≫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당시에는 이론을 정리하여 하나의 도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학문의 중요한 방법이었다.

5) 여기서 추만과 퇴계의 설명의 차이를 부각시키자면 다음과 같다. 추만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이 달라지는 '원인'이 각각 리(理)와 기(氣)일 뿐이다. 하지만 퇴계에 따르면 사단이 곧 리의 움직임이며 칠정은 기의 움직임이다. 추만의 주장은 고봉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퇴계의 주장은 고봉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추만처럼, 칠정이 생겨나는 원인이 기(氣)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원래 리(理)를 포함하지만 기(氣)의 차이로 인해서 칠정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퇴계처럼 칠정이 기의 움직임이라고 말한다면 거기에는 리가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대환, 1992, 43쪽). 기에서 칠정이 발동하고 칠정은 사람이 타고나는 모든 감정이라면 사람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쟁점에 대해서 퇴계는 철저히 주리론적 입장을 취했고 고봉은 주기론적 입장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성태용, 1992, 89쪽).

퇴계의 입장에 따르면 사단은 그 자체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에 비해 칠정은 그 자체로는 도덕과 무관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나치거나 모자라기 쉬운" 그리하여 도덕의 부정적 평가를 받기 쉬운 속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퇴계는 사단이 인간의 천부의 도덕적 본성에서 나온 것이며 칠정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한다(김기현, 1992, 58쪽). 이에 반해 고봉은 사단과 칠정이 구분되는 근원이 곧, 기(氣) 작용이 리(理)를 완전히 실현시키느냐 실현시키지 못하느냐를 기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단과 칠정 모두 리기(理氣)의 합임에는 차이가 없다. 즉 사단과 칠정의 구분은 기(氣) 작용에 의한 리(理)의 실현 정도에 따른 구분이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고봉의 입장이다(성태용, 1992, 73쪽). 이러한 입장 차이는 퇴계와 고봉의 리기론에서의 입장 차이와 연관되어 있다. 정리하면 <표 2>의 내용과 같다.

이러한 퇴계와 고봉의 입장이 적절히 융합된 것이 율곡의 사단칠정론이라 할 수 있다. 율곡의 입장에서 리기(理氣)는 서로 떨어질 수 없어 마치 일물(一物)인 것 같으나, 리기의 발성에서 살펴보면 리(理)는 스스로 리요, 기(氣)는 스스로 기이어서 서로 혼동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율곡은 리기가 서로 떨어질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섞여있는 측면을 중시한다. 왜냐하면 리기의 본질에 있어서 리는 형이상자이고 기는 형이하자이며, 성질상 리(理)는 무형무위한 것이며 기(氣)는 유형유위한 것이며, 가치상으로는 리는 본래 지선한 것이요, 기는 악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엄격히 구분되지만,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리는 기의 주재가 되며 기는 리의 기(器)(질료)가 되는 것이므로 둘은 서로 떨어질 수 없이 하나로 발용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곡의 입장에서 보면, 불상리의 측면에서는 기가 아니면 발할 수가 없고 리가 아니면 발할 근거가 없는 것이요, 불상잡의 측면에서는 발하는 것은 기(氣)이요, 발하는 소이(所以)가 되는 것은 리(理)인 것으로서 묘합하여 있는 것이다(장숙필, 1992, 95쪽).

표 2. 퇴계와 고봉의 사단칠정론 비교

<table>
<tr><th>학자</th><th colspan="3">사단과 칠정에 대한 설명</th><th>입장의 핵심</th></tr>
<tr><td rowspan="2">퇴계</td><td colspan="3">사단: 리(理)의 산물. 천부의 도덕적 본성</td><td rowspan="2">사단과 칠정이 근본적으로 다름.</td></tr>
<tr><td colspan="3">칠정: 기(氣)의 산물. 악의 가능적 근원</td></tr>
<tr><td rowspan="2">고봉</td><td>사단</td><td rowspan="2">리기(理氣)의 합</td><td>리(理)가 잘 실현됨</td><td rowspan="2">사단과 칠정이 원래 같지만 기(氣)의 차이로 다르게 나타남.</td></tr>
<tr><td>칠정</td><td>리(理)가 실현 안 됨.</td></tr>
</table>

이런 율곡의 입장은 사단칠정론의 쟁점을 깊이 있게 끌고 간 중도적이고 종합적인 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사단칠정론과 태권도 철학의 관계를 논구하는 본 논문의 목적에 따라 사칠론의 쟁점을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퇴계와 고봉의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다 깊이 고찰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것이다. 그것은 통념적으로 "주리론적 입장"과 "주기론적 입장" 차이로 이해되는데, 이 차이는 퇴계와 고봉의 ① 형이상학의 차이와 ② 학문의 목적의 차이라는 맥락에서 중요하게 이해된다.

첫째, 형이상학의 차이란 퇴계와 고봉의 리와 기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가리킨다. 한국 성리학의 리기(理氣)철학은 퇴계를 전후하여 그 특징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유명종, 2000, 162쪽), 그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리와 기를 철저히 구분하고 리의 본체론적 실재성, 곧 형이상학적 실체성을 긍정하며 기에 대한 리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유초하, 1996, 42쪽). 이런 리기론을 정립한 퇴계는 자연스럽게 리와 기를 엄격히 구분하였고 사단과 칠정 역시 엄격히 구분하였다(이완재, 2001, 286-288쪽). 이에 비해 고봉의 리기에 대한 관점은, 리와 기가 개념적으로는 나누어지지만 현상적으로는 늘 함께 있다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 고봉은 그러한 관점을 "리기가 하나의 사물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별개의 사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성태용, 1992, 72쪽).

표 3. 사단칠정론의 내용 정리

사단칠정론	내 용
궁극적 관심	인간이 어떻게 착해지고 악해지는가에 대한 탐구
학문적 쟁점	사단이 칠정의 한 부분인가, 서로 전혀 다른가?
학자들 입장	퇴계: 주리론(사단: 리(理) + 칠정: 기(氣)) 고봉: 주기론(사단과 칠정: 리기(理氣)의 합)
입장 차이의 맥락	① 형이상학의 차이: 주리론과 주기론의 차이 ② 논의 목적의 차이: 도덕성 강화, 학문적 설명

둘째, 학문의 목적 차이란 성리학을 하는 목적의 차이를 가리킨다. 퇴계가 주리론적 사단칠정론을 전개한 근본 목적은 봉건적 규범 체계를 인간의 내면에 본래적으로 있는 도덕성을 근거로 하여 재정립하고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고봉의 주기론적 주장의 관심은 사단과 칠정으로 설명하는 성리학적 인간론의 논리를 보다 설득력있게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었다(성태용, 1992, 87쪽).

이상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표 3>과 같이 된다.

IV. 태권도 철학과 사단칠정론 (四端七情論)

1. 성리학과 태권도 철학

사단칠정론을 태권도철학의 관점에서 조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리학과 태권도철학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비교는 양자 내용의 전체 구조에 있어서나 세부적인 문제의식에 있어서나 적절해야 한다. 태권도 철학의 내용은 학자들마다 상이한데, 박준석(2004)과 정근표(2008)의 비교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공히 삼재강유론, 강유론, 허실론, 이경명의 태권도 철학을 논의하고 있다. 그 밖에도 태권도 정신에 대한 연구 내용들도 태권도 철학의 내용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태권도 철학에 대한 연구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것에 비해서 충분하지는 못한데,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철학의 정확한 개념에 따를 때 태권도 철학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철학은 그 근본적인 개념에 있어서 비판적인(critical) 사고활동으로서(오병남, 1988) 지식(혹은 학문)에 대한 반성(혹은 비판)을 수행하며, 그리하여 과학철학이 과학에 대한 비판적 반성이듯이 태권도철학은 태권도에 대한 비판적 반성의 지적활동이어야 하기 때문이다(김방출, 이창후, 2007). 한편 태권도는 그 존재론적 실체가 바로 상대를 제압하는 기법체계 혹은 기술적인 움직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삼재강유론, 강유론, 허실론은 바로 그러한 태권도의 기법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더불어서 다양한 태권도 기법들을 일관하는 원리를 도출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현상들을 일이관지하는 원리도출은 일반적으로 비판적 고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적 성과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일단 삼재강유론, 강유론, 허실론은 태권도철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태권도 정신에 대한 몇몇 연구들은 태권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아니라 태권도 정신에 대한 연구이므로 태권도 철학의 범주에 포함시킬지는 별개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삼재강유론적 태권도철학이 성리학과 태권도철학을 비교할 때 활용가능한 가장 나은 대안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강유론이나 허실론은 그 나름의 가치가 있으나 태권도 철학 전체를 포괄하기는 어려워 보이고(박준석, 2004, 140쪽), 이경명의 태권도 철학은 언어적 포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정근표, 2008) 때문이다. 강유론의 경우 강과 유에 대한 한자어구들에 대한 풀이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나 논의의 최종 결론으로서는 졸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단순 원리를 도출하여 태권도 전반에 대한 비판적 고찰로서는 부족함이 많고 허실론 역시 허허실실의 원리로 겨루기 기술을 설명하는 부분은 설득력이 있으나 태권도 품새나 기본동작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위해서는 역시 설명력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경명의 연구는 여러 함축적인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고 다른 방식으로 따질 수도 없는 명제들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에서 태권

도에 대한 언어적 포장으로 간주된다. 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박준석(2004)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경명은 한국인이 3이라는 숫자를 신성시 여긴다는 증거로 숫자 3은 모든 운동 경기에서도 등위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올림픽의 공식표어는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강하게"로 스포츠 정신을 세 가지로 요약, 강조하고 있다는 점까지 지적하는 등(이경명, 2003, 143쪽) 근거가 매우 희박하고 정당화되기 힘든 주장을 많이 제시한다.

삼재강유론적 태권도 철학에는 여러 측면이 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태권도가 무예의 기법으로서 존재하므로 이런 태권도의 실체를 이해하는 원리, 즉 기법의 원리로서 삼재강유의 원리를 제시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삼재강유론적 태권도 철학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매우 포괄적인 측면에서 태권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생산적인 쟁점들을 도출할 수 있는 맥락들을 제공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태권도를 정신·기법·수련의 3차원에서 반성하는 3국면적 이해(이창후, 2007a)이다. 태권도에 대한 3국면적 이해는 태권도 철학이 단지 정신에만 집중하는 공허한 이론에 그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기법에만 초점을 맞추는 편협한 관점에만 매몰되는 것을 예방하면서 태권도인이 태권도를 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수련의 요소를 더 포괄하고 동시에 정신, 기법, 수련을 하나의 전체 체계로 연관시켜서 고찰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런 입장에 따르면 태권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격투기법의 체계라는 점이기 때문에, 태권도를 태권도이게끔 하는 것, 즉 태권도와 다른 것이 구분되도록 하는 본질은 태권도의 기법에 있지만 동시에 태권도의 본질인 기법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존재조건으로서의 확장된 태권도의 본질은 기법의 내면인 정신과 기법의 습득과정인 수련을 포괄한다(정근표, 2008).

정리해서 말하자면 삼재강유론적 태권도 철학에서 태권도의 3국면적 이해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론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태권도에 대한 3국면적 이해는 태권도와 태권도의 목적에 대한 진정한 통찰, 혹은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둘째, 태권도의 중요한 모습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셋째, 태권도에 대한 우리의 중요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필연적인 관계 속에서 연관되는지를 설명해 준다(이창후, 2007a).

태권도의 3국면적 이해와 성리학의 이론체계를 비교해 보면 그 내용의 유사성의 기준에 따라서 기법론은 리기론에, 정신론은 심성론에, 그리고 수련론은 수양론에 대응된다. 하지만 각 단원의 이론적 위치에 따라서는 정신론이 리기론에, 기법론이 심성론에, 그리고 수련론이 수양론에 대응될 것이다. 여기서 이론적 위치란, 기법론과 수련론, 수양론이 전체 이론 안에서 점하는 논리적 구조를 가리킨다. 그 이유를 고찰해 보자.

일단 성리학과 태권도철학의 내용 상의 대응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성리학의 리기론에서 다루는 것은 만물의 존재론적 구조이다. 만물은 리와 기로 되어 있다는 것이 리기론의 내용이다. 여기에서 성리학이 관심을 기울이는 만물은 학적 관심 대상의 전체이다. 그렇다면 태권도철학에서 학적 관심 대상의 전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태권도의 기법이다. 태권도 기법은, 성리학의 리기론이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인 우주와 같이 태권도 철학에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의 총체이다. 물론 태권도 철학에서도 사물들 전체에 주목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경우 태권도 철학은 일반 철학이 되고 학적 정체성은 사라진다. 태권도 철학의 학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가지게 되는 학적 관심 속에서의 대상 전체는 태권도의 기법들의 전체이다. 또한 이것은 태권도의 세계 안에서 객관적인 것이다.

한편, 성리학의 심성론은 인간의 주관적 세계, 인간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하며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유사한 태권도 철학의 내용이 곧 태권도 정신에 대한 내용이다. 양자는 내용적으로 주관적이며 인간의 내적 측면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유사하다.

성리학의 수양론과 태권도 철학에서의 수련론이 내용적으로 대응된다는 것 역시 그 용어의 유사성만을 봐서도 금방 알 수 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더라도 성리학의 수양론은 성리학적 목표인 인격수양을 해 나가는 방법을 내용으로 하며 태권도 철학에서는 그 목표인 기법의 터득을 위한 수련을 해 나가는 과정

및 방법을 내용으로 한다. 양자의 유사성은 충분히 명료하다.

하지만 성리학과 태권도철학의 이론구조적 유사성을 생각하자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성리학 전체에서 리기론과 심성론, 수양론이 각각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성리학이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실천적인 답은 수양론에 있다. 성리학, 더 나아가서 유교가 근본적으로 답하고자 하는 물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며 이에 대한 유교의 답이 "도덕적으로 완성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완성된 삶을 사는 방법이 바로 도덕적 수양이다. 이 수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론적 근거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인간의 심성은 갈고 닦으면 한 때 나쁜 심성이더라도 도덕적으로 좋은 심성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심성론의 핵심이다.[6] 나쁜 심성도 갈고 닦으면 도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되는 곳이 리기론이다. 리기론에 따르면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리와 기로 되어 있고 리는 완전하지만 기의 불완전성으로 인해서 본질이 가려진다. 동시에 기의 불완전성을 고치기만 하면 리의 완전성이 드러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성리학의 실천적인 해답은 수양론에 있고 수양하는 직접적인 대상에 대한 내용이 심성론이며, 수양과정의 성과를 보장하는 논리적 이유에 대한 내용이 리기론이다.

그렇다면 태권도 철학에서는 어떠한가? 성리학이 인간의 삶에 대해 반성하듯이 태권도 철학은 태권도에 대해서 반성한다. 태권도의 물음은 "어떻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고 그 답은 "태권도의 기법을 얻음으로써"이다. 어떻게 태권도의 기법을 얻는가 하는 실천적인 해답은 수련론 안에 있다. 수련하지 않으면 태권도 기법을 자기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론구조 상 성리학의 수양론은 태권도 철학의 수련론과 대응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양자는 내용적으로도 유사하다.

그런데 태권도의 수련론에서 수련하고자 하는 그 직접적인 대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법이다. 이것은 성리학적 수양의 직접적인 대상이 인간의 심성이었던 것과 같은 논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기법을 갈고 닦아서 상대를 제압하고 태권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얻을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삼재강유론적 태권도철학에서는 정신론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기법이 불완전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신의 잘못에 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좀더 충분한 설명으로 정당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정당화는 태권도 수련의 경험에 근거해야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수련을 통해 기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가 정신이라는 주장에 대한 의문 자체가 개념적인 모순이 아니라 경험과의 불일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권도 수련 및 지도에서의 우리 경험을 보다 잘 고찰해 보면, 처음에 자세와 동작이 좋던 수련생이 수련할수록 기법이 불완전해지는 까닭은 주로 그 자세와 동작에만 초점을 맞추고 공격하고자 하는 의지 및 심리요소는 무시하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역으로 다소 자세와 동작이 정확하지 않고 변칙적이더라도 상대를 공격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련하는 수련생의 실력은 빨리 향상된다. 적어도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주로 공격적인 수련생이 기법에 빨리 숙달되는 까닭은 바로 이것이다. 핵심을 간결하게 표현해 보면 "공격의 동작에는 공격의 마음이 있어야 하고 방어의 동작에는 방어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이창후, 2003). 이렇게 봤을 때 수련을 통해서 기법을 얻을 수 있는 근본 이유는 정신의 변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리기론이 심성 수양의 성과를 보장하는 논리적 위치를 점하는 것을 태권도철학에서 찾자면 정신론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성리학과 태권도 철학의 구조 비교

성리학의 내용	태권도 철학	
	내용 상의 대응	이론구조에 따른 대응
리기론	기법론	정신론
심성론	정신론	기법론
수양론	수련론	수련론

6) 여기서 맹자의 성선설과 순자의 성악설이 교차하는데, 성리학은 근본적으로 맹자의 성선설을 토대로 한다.

표 5. 삼재강유론적 정신론

구분	태권도의 내용				태권도 정신의 내용			
무극	일기예				삶의 안쪽으로의 초월			
삼재	하늘	땅	사람		경(敬)	절제	중용	안
					성(誠)	바름	수신	밖
기법	강(剛)		유(柔)		의(義)		예(禮)	

추가적으로 논의하자면 성리학의 관점에서 리(理)에 대응하는 것이 곧 태권도철학에서의 삼재강유의 원리라 할 수 있다. 기(氣)는 태권도의 자세와 동작, 혹은 인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 태권도의 리의 내용은 정신론에서의 삼재강유론적 정신구조와 일치한다. 그것은 <표 5>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성리학의 "무극-태극-음양-오행-만물"의 위계 구조가 태권도철학에서의 "태극-삼재-강유-모든 기법"의 위계구조에 대응된다는 점이다. 그 위계구조의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각 위계구조가 이론 전체에서 점하는 위치는 서로 비슷하다. 그것은 곧 그 내용들이 리(理)의 내용들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비교를 근거로 한다면 성리학과 태권도철학을 포괄적으로 비교하면서 단지 지엽말단의 유사성에만 근거해서 양자를 비교하는 착오를 저지르지 않고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사단칠정론의 논의를 태권도 철학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자.

2.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과 태권도 철학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의 쟁점은 "리기론적 관점에서 사단이 칠정의 한 부분인가, 서로 전혀 다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인간이 착해지고 악해지는 존재론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이다. 사단칠정론은 성리학의 심성론적 논의의 일부인데, 내용상의 대응에 따르면 그것은 "태권도의 정신이 옳고 바르게 되는 존재론적 근거는 무엇인가?"하는 정신론의 문제가 되고 이론구조에 따른 대응에 의하면 "태권도 기법이 옳고 바르게 되는 존재론적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기법론의 문제가 된다.

태권도 철학에서 두 물음은 모두 중요하다. 그러나 태권도의 독특한 학문적 관심 안에서의 논리적인 순서에 따르자면 기법론적 문제가 더 우선적일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를 따져보자. 먼저 성리학에서 사단칠정론이 포함되는 심성론이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를 보자. 유교의 한 양태인 성리학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수양을 중시하는 도학(道學)이다. 따라서 성리학에서 탐구하는 성명이나 의리(義理), 도(道) 등은 결코 행위와 무관히 탐구되는 객관적 지식에 그치지 않는다(이종태, 1996, 62쪽). 사단칠정론은 바로 그 수양의 직접적인 대상에 대한 논쟁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논리로, 태권도의 직접적인 수련의 대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법이다. 여기서 성리학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심성에 해당하는 것이 태권도의 정확하거나 잘못된 기법이다. 그러므로 사단칠정이 성리학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태권도 철학에서 찾아보면 태권도 기법이 바르거나 잘못되는 근거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성리학에서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었던 만큼이나 태권도철학에서 논쟁거리가 될 만한 가치가 있다.

한편 성리학에서의 사단칠정론이 태권도 철학에서의 정신론의 문제라고 생각해 보자. "태권도의 정신이 옳고 바르게 되는 존재론적 근거는 무엇인가?"하는 물음은 1차적으로 태권도 고유의 물음이 아니다. 태권도는 무예이고 이 점에서 태권도는 무예를 무예이게끔 하는 것, 즉 무예의 본질인 격투기법의 체계로서의 본질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중심으로 태권도가 갖는 인간 활동으로서의 보편성을 함께 고려해야만 한다(이창후, 2007a). 그리고 이것이 가장 우선이다.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의 정신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것은 모두 태권도의 격투기법 및 능력이 갖추어지고 나서야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서, 정신론에서의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일반적인 도덕론의 옳고 그름의 문제와 다름이 없으므로 태권도 철학 고유의 문제로서 의미는 부차적이기도 하다.

사단칠정론에서 심성의 선과 악의 근거에 대한 답을 리기론에서 찾았다. 그렇다면 태권도 철학에서 기법의 옳고 틀림의 근거에 대한 답을 태권도의 정신론에서 찾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는 설득력있게 가능

표 6. 태권도 철학에의 사단칠정론(사칠론) 적용

태권도 철학과 사칠론		내 용
태권도 철학에서 사칠론의 물음		태권도 기법이 옳고 바르게 되는 존재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태권도 철학에서의 논의의 방향	주리론적 논의	기법의 정확성: 삼재강유의 원리에 근거 기법의 잘못: 개인의 특질과 실수에 근거
	주기론적 논의	기법: 삼재강유와 개인의 신체활동의 결합 기법의 성패: 개인의 신체활동의 적절성 여부에 의해 결정됨.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히려 태권도 철학의 정신론에 사단칠정론이 보다 더 많은 철학적 함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은 이 지점일 것이다. 실제로 기법이 정확하거나 틀리게 되는 데에는 기법을 주재하는 정신적 작용의 옳고 그름이 개입한다. 대표적으로 "태권도란 마음의 길이다"나 "공격의 동작은 공격의 마음을 필요로 하며 방어의 동작은 방어의 마음을 필요로 한다"(이창후, 2000, 5부5장)라는 주장에서 매우 경험적으로 제시된다(이창후, 2007a).

사단칠정론에서 퇴계와 고봉을 정점으로 하는 주리론과 주기론적 입장 차이는 태권도 철학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 주리론을 적용한 태권도 철학적 입장은, 기법은 삼재강유의 리(理)에 의해서만 정확해지며, 그 잘못됨은 오직 자세의 잘못, 인간의 신체적 불완전함이나 잘못된 이해에만 기인한다는 입장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한편, 주기론은 기법이란 것은 개념적인 원리만으로는 실제로 존재하지 못하므로 삼재강유의 리(理)와 인간의 신체와 움직임이라는 기(氣)가 결합하여 이루어지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와 움직임이 삼재강유의 원리를 잘 소화하면 기법은 정확해지며 그렇지 못하면 기법이 정확하지 못하게 된다는 입장이 될 것이다. 어느 입장이나 나름의 설득력은 있다. 그것은 퇴계와 고봉의 입장이 모두 사단칠정론에서 설득력이 있었던 것과 같다.[7]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율곡의 입장도 태권도 철학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표로 정리해 보면 <표 6>과 같다.

이런 전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어떤 특정 결론이 태권도 철학에 더 옳다라고 결단할 수는 없으며, 그것이 당장 태권도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태권도는 충분히 세계적인 무예로 자리 잡았지만 태권도 철학은 발전하는 과정에 있으며 사단칠정론은 우리 전통의 철학적 담론으로서 태권도 철학의 발전에 어떤 쟁점과 논의의 방향을 찾아줌으로써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V. 결 론

지금까지 한국 성리학의 고유한 쟁점이었던 사단칠정론이 태권도 철학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그리고 그 고찰은 긍정적인 내용을 산출하였다. 물론 이것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자면 처음부터 태권도와 한국 성리학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사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리학이 태권도에 어떤 방식으로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가정 위에서 조선성리학의 중요 쟁점이었던 사단칠정론이 방법론적으로나 주제의 가치에 있어서 태권도철학에 어떤 함축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사단칠정론의 쟁점은 내용상의 유사성에 근거하면 태권도철학에서의 정신론의 문제와 결부될 수 있고 전체 이론적 맥락에서의 논리적 구조의 유사성에 근거하면 기법론의 문제와 결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하지만 본 연구자는 사단칠정론의 철학적 함축을 태권도철학에서의 기법론적 쟁점과 결부시켜 고

7) 만약 한 입장이 월등히 우월했다면 논쟁은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사단칠정론은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셋째, 사단칠정론에서 주리론과 주기론적 입장 차이를 태권도 철학에서의 기법론적 쟁점에 대입하여 생각하자면 그것은 태권도 기법의 정확성은 삼재강유의 리(理)에 의해 결정되고 기법의 잘못과 실패는 기(氣)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입장으로 변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이 태권도철학과 사단칠정론을 연관 짓는 유일한 방식도 아닐 것이다. 성리학 전체의 구조와 태권도학 전체의 구조를 조심스럽게 비교고찰하면서 사단칠정론이 태권도학의 맥락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를 다르게 설정해 볼 수도 있으리라고 본다. 다만 그 작업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의 핵심 내용도 그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확실한 것 하나는 태권도학 혹은 태권도 철학과 한국 성리학의 비교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되어야 할 과제라는 점이다. 다만 모든 연구는 비판적 정신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만 하며, 기존의 몇몇 연구에서 발견되듯이 무비판적으로 태권도와 성리학을 연관짓는 이론적 포장만을 조심해야 할 뿐이다. 이후의 좋은 연구들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김기현(1992), 퇴계의 사단칠정론,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민족과 사상 연구회 편, 서울: 서광사.

김방출이창후(2007), 태권도 철학의 비판과 그 방법론, **한국체육학회지, 제46권 제2호**, 35-45

박준석(2004), **한국무예학 통론**, 서울: 백산출판사

배정하(1995), **이퇴계의 보건·체육 사상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백도근(1994), **화해이념의 형성과 완성: 선진유학과 주자철학**, 서울: 이문출판사.

성태용(1992), 고봉 기대승의 사단칠정론,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민족과 사상 연구회 편, 서울: 서광사.

오병남(1988), 미학과 예술, **예술교육과 창조**, 한국예술문화 연구소.

유명종(2000), **퇴계의 일생과 철학체계**, 서울: 현대미학사.

유초하(1996), 관학파·한국 성리학의 이론적 정초, **조선유학의 학파들**(한국사상사연구회(1996)), 서울: 예문서원.

윤천근(1987), **퇴계철학을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온누리.

윤천근(1996), 주리 철학의 이론적 심화, **조선유학의 학파들**(한국사상사연구회(1996)), 서울: 예문서원.

이경명(2003), **태권도의 바른 이해**, 서울: 상아기획

이완재(2001), **공자에서 퇴계까지**, 서울: 이문출판사.

이종태(1996), 전기사림파·도학적 실천 정신의 착근, **조선유학의 학파들**(한국사상사연구회(1996)), 서울: 예문서원.

이창후(2003), **태권도의 삼재강유론**, 서울: 상아기회.

이창후(2007a), 태권도의 철학적 이해, **태권도학 연구(1)**(태권도 문화연대 편), 121-146

이창후(2007b), 태권도와 조선 성리학, **태권도학 연구(1)**(태권도 문화연대 편), 273-300

장숙필(1992), 율곡의 사단칠정론,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민족과 사상 연구회 편, 서울: 서광사.

정근표(2008), **한국 성리학적 접근을 통한 태권도 본질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대환(1992), "정지운과 사칠 논쟁의 발단",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민족과 사상 연구회 편, 서울: 서광사.

정재환(1996), **퇴계·율곡의 한국 체육 사상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황준연(1995), **율곡 철학의 이해**, 서울: 서광사.

논문투고일: 2010. 04. 30
논문심사일: 2010. 05. 18
심사완료일: 2010. 06. 17